

“민주열사 이장 기록 사명감에 망월묘역서 날마다 셔터 눌러”

‘1997 망월’ 사진전 여는 임무택 작가

1987년 광주 진실 알린 사진전 보여 사진 한장의 힘 느껴 3개월간 찍은 국립묘지 이장 모습 20년만에 200여점 전시

임무택(63)씨는 지난 1997년 봄을 광주 국립묘지 제 3묘원(5·18구묘역)에서 보냈다.

늦깎이 사진학도(광주대)로서 졸업작품 전시회에 선보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5·18구묘역은 파묘가 한창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에 조성된 국립5·18민주묘지(5·18신묘역)로 유해를 이장하려는 유족들로 일대는 종일 북적였다.

인문사 기자들은 고(故) 윤상원·박기순 씨의 묘를 이장하는 모습이나 신묘역 조성식 등 화제가 될 만한 순간만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갔다. 구묘역이나 문중 묘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대략 3개월가량이 걸렸다. 43세의 늦깎이 사진학도 임무택은 날마다 셔터를 눌렀다. 졸업작품을 준비한다는 애초의 목적보다, 누군가는 폭도의 이름으로 잡은 광주시민들이 민주화 열사로 인정받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과정을 온전히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임씨를 망월동으로 끌어들였다.

임씨가 찍은 그날의 기록들은 졸업작품 전시회 대신 논문으로 대체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20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임씨에게 전시회를 제안하면서 그가 찍어둔 200여점의 사진은 2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지난 25일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막한 ‘1997 망월’이라는 사진전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벗어나 있던 임씨는 뒤늦게 5·18민중항쟁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 서울 퍼린 5공 독재의 폭압 속에서 금남로 광주가톨릭센터에서 열린 ‘5·18 사진전,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준비하면서다.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책임간사였던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과 홍세현 광주시 상임인권옹호브랜디 전사회 판을 짜고 작가 홍성담씨는 전시 기획을,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임씨는 사진 인화를 맡았다. 시민들에게서 넘겨받은 필름을 인화한 사진 수십



임무택 작가가 26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1997 망월’ 사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점은 광주학살의 참상을 전국에 알리는 시발점이 됐다. 진실에 목말랐던 수천 명의 인파가 2주가량 계속된 전시회 기간 내내 광주가톨릭센터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를 계기로 시민이나 언론인들이 집안 깊숙이 넣어뒀던 필름들이 천주교로 넘겨졌고 광주의 진실을 담은 사진들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처음으로 사진 한 장의 힘을 느꼈어요. 금남로 가톨릭센터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광주은행 본점을 지나 1km 이상 길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들이 또 다른



1997년 5·18구묘역(광주시립묘지 제3묘원)에서 유골수습을 마친 유가족들이 유골함을 안고 신묘역(국립5·18민주묘지)으로 이장하려고 걸어가는 모습.



최미애(당시 임씨 8개월째)씨 가족이 이장을 위해 파묘(破墓)에 앞서 제를 올리는 모습. 최씨는 1980년 5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나갔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임무택 작가 제공>

사진 제보를 불러오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장의 힘과 80년 5월의 진실이 저를 망월묘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글·사진=김형호기자 khh@

교사 채용 미끼 돈 쟁권 전직 고교 이사장 구속

순천경찰청은 26일 자녀를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모 고교 이사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녀를 정교사나 행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지인 2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받아 쟁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가족이 설립한 여수의 한 사립고교에서 지난 2015년 초부터 10개월간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나, 교사·행정실 직원 채용 권한은 없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교사 채용 비리 광주시의원 1심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조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동장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시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2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쟁권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야옹 틈타 페유 버린 기관장

○부산선적 예인선 기관장이 야옹을 틈타 전남 앞바다에 페유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수사에 나선 해경에 덩미.

○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예인선 K호(151t급) 기관장 A(71)씨는 전날 밤 11시40분경 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내 페유 147ℓ를 몰래 버렸는데, 해경은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공조해 사고 해역을 오간 선박을 일일이 뒤져 선체 외측과 페유 배출 호스 등에 기름이 묻은 K호를 적발.

○해경 관계자는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쉽게 페유를 바다에 버리는 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격해 검거할 것”이라며 페유 불법 배출 근절을 다짐.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평전 나왔다

타계 10주기 맞아...소설가 안재성씨 한·미 300여명 인터뷰

‘5·18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1947~2007)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다룬 평전 ‘윤한봉’(장비)이 출간됐다.

윤 전 소장은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투옥됐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을 반복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내란음모죄로 수배된 뒤, 화물선에 숨어 미국으로 탈출했다. 12년간 미국 망명생활 중에는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해 5·18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일생은 한국 학생운동사와 긴밀히 연결돼 있을 만큼 평생을 학생운동가로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은 늦깎이 대학생으로 전남대에 입



윤한봉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학한 윤한봉이 5·18 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수배돼 미국 망명을 한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시기적으로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운동가로서 활동을 펼친 그의 면모가 오롯이 담겨 있다.

소설가 안재성씨가 정리한 책은 윤한봉의 자서전 ‘운동화와 통가방’을 비롯한 구술자료와 지인들의 추모문집, 강연록 등 기존 자료를 밑바탕으로 엮여져 있다. 또, 한국에서 9차례에 걸쳐 250여명을 만나고 미국에서도 50여명의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등 새로 취재한 내용도 더해져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래놀이 즐거워요” 26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놀이 전래놀이’ 행사에 참가한 광주주니어이웃집 원생들이 감사와 함께 딱정구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010-7384-7800 010-2699-5300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전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전남 보성 신축아파트(분양)

보성 역 1분!! 보성군청 5분!!

총 187세대

25평, 29평, 34평

보증금 3,000만 월 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경기도 여주시 아파트(분양)

버스 정류장 5분! 가남초등학교 7분!!

2017년 12월 성남정호원간 고속도로 예정

24평 - 평가가 6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청담지구 생암공원 1분, 총 2억 1천만 (임대가능) ▶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속박사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가 1분 총장로 중심 상업권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북구 용봉동 (12층 중 6층 상가) 토 62평, 건 99평 왕봉동 ogv, 굿모닝 터운 주차완비 / 월세 100만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3천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평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 감평가 6천 → 최저가 2천7백
3. 삼우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삼우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평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4.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5.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